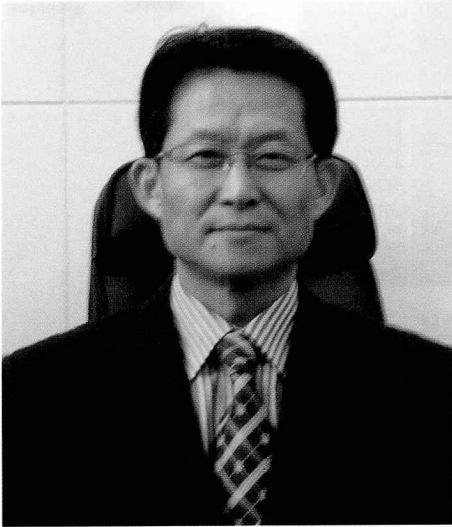


“다양하고 많은 경험과 실적으로 시스템 분배기 업계 선도할 것”



사장
샘시스템

▶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샘시스템은 삼양밸브의 자회사로써 5년 전 이태리 칼리피사와
합작으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에 회사를 기동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분배
기의 업계선두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관리팀
(현장과 건설사), 기술 영업팀(관공서와 설계회사)으로 구성된 조직이
올해는 100억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건
설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납품 실적으로는 국내 상위 그룹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와 몇몇의 도시 개발 공사와
주택공사에 납품 완료 및 납품중인 상태로 국내 시스템 분배기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요 생산 품목의 특징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실별유량조절밸브 : 실별 필요 유량으로 밸런싱되어 시스템이 안정적이며, 실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시간에 동일온도로 난방이 가능합니다.
2. 구수의 최소화 : 주문생산 및 최소한의 설치공간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유지보수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온조조절구동기 : 구동부의 마모 및 과부하 시 오류발생 문제 해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100,000회의 내구력)
4. 자동공기배출밸브 : 자동으로공기를 배출시켜 공기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및 열 전달 손실
을 방지해줍니다.
5. 배수밸브 : 배관상에 과다하게 발생된 이물질로 인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 배관
없이 직접 배수가 가능합니다.
6. 코일길이 : 분배구 당 코일길이의 제한이 최장 150m까지 가능하여 분배기 수량 및 분배구
수를 줄일 수 있으며, 각 존을 한 개의 구수로 제어함에 따라 안정된 시스템 및 현행 베란다 확장
에 따른 1존당 코일길이 연장에 가장 적합하며 설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 EM 마크 획득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밀성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 활동에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업계 동향과 시장은 시스템 분배기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 및 지방 지구나 단지의 아파트들의 규모나 평수가 커지고 있는 건설업체 현실에서 각 방제어가 불가피하며 발코니 확장등 평수가 커지다 보니 넓은 부분을 골고루 난방을 하게 됨에 따라 시스템 분배기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여러 회사에서 업계에 뛰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샘시스템은 벌써 5번째 겨울을 맞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분배기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업계 정상을 달리며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통상적으로 각 방 제어 분배기를 샘 시스템 또는 시스템 분배기라고 부르는 것 또한 저희 회사에서 파생된 말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먹구구 방식인 난방 기술을 이론과 실재가 맞도록 확대 보급하여 시스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압 밸브, 기수분리기도 적용하여 완벽한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많은 시스템 분배기 회사가 많이 생겼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시스템 분배기를 설치하여 오는 장애를 차압 밸브나 기수분리기의 설치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제어를 위한 저희 회사의 노력은 업계의 선두의 자리에 선만큼 철저한 A/S와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시장 대응 등 귀사의 기업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하고 많은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분배기의 업계에서 선두의 자리를 확고히 굳힐 것이며, 이번 겨울을 기회삼아 시스템 분배기의 회사 중에서 명



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급수 급탕 헤더 시스템으로 급수압과 급탕의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분배기를 확대 보급하려 합니다. 개별난방의 경우 고온의 물이 공급되어 많은 화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믹싱밸브 사용하여 안전하게 급탕을 이용하는 기술을 널리 보급해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기에 영업적인 차별화와 각 현장/건설사 그리고 설계 회사를 위주로 다양한 전술을 통하여 명실 공히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욱 더 나은 시스템 분배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바다 난방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미한 기술적인 부분을 업계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우리 협회와 월간 보일러 설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는 월간 보일러 협회지를 통하여 저희 시스템 분배기의 저변 확대를 통해 난방기술이 발전되고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들로부터 난방 기술자들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업계 정보를 협회지를 통해 제공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